

충남리포트 제236호

ChungNam Report

2016. 8. 25.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 종 화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sdart@cni.re.kr

본 연구는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요 약

- 최근 수산업은 기존의 어업, 수산업 등 산업적 개념에 어촌, 어항 등 공간적 개념을 더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 · 복합 고차산업화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6차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충남 사례를 살펴보고,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충남은 이미 농업 · 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선도하는 광역자치체로서 높은 위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어업 · 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를 위하여 1차(생산), 2차(가공), 3차(체험 · 관광) 중심으로 각 2개소씩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문제점은 산업 간 단절성, 자원의 분산성, 사업의 산재성, 주체 및 행정의 비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충남의 향후 정책방안으로 광역단위 6차산업화 체계구축,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마을 중점사업 강화,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 강화, 담당 공무원 지식 및 능력 배양, 민간 주도의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조직 육성 및 마케팅활동 강화를 제안함.

CONTENTS

< 요 약 >

1.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필요성
2. 어업 · 어촌 6차산업화의 정의와 유형
3.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사례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정책 제언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필요성 ◀

01

- 최근 수산업은 기존 어업, 수산업 같은 산업적 개념에 어촌, 어항 등 공간적 개념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고차산업화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이는 기존의 정주, 생산, 산업, 경영조직 중심에서 삶의 질, 가치, 공간, 공동체 중심으로 어업 · 어촌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충남은 이미 농업 · 농촌 분야에서 6차산업화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서 높은 위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어업 · 어촌 분야의 6차산업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6차산업화 용어 자체가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인식되어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 · 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내 어느 지역보다 6차산업화 발전 가능성이 큰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정의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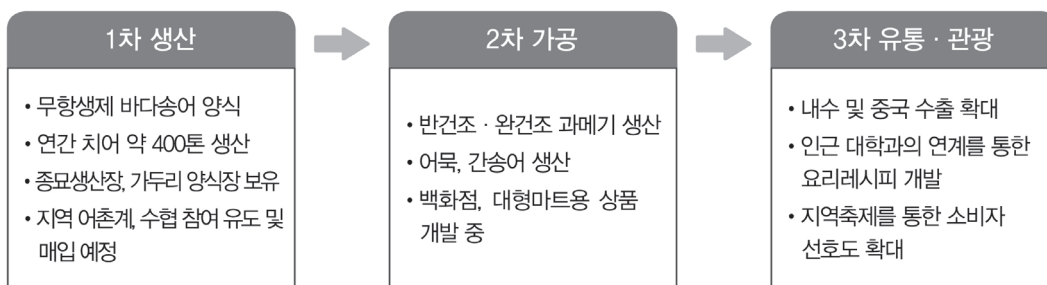
- 이마무라(今村, 1998)에 의하면 6차산업화는 「농업이 1차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고, 고령자와 여성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정의함(小林, 2012).
 -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산업화라고 할 수 있음.
-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의 개념을 적용하면, 「1차(어업), 2차(수산물가공·식품제조), 3차(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 산업 간 융·복합으로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유발하는 사업 및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어업·어촌 6차산업화는 농업·농촌과 생산기반 및 여건이 달라 그 유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개별어가를 비롯하여 어촌계, 지역공동체, 법인 경영체, 지자체가 포함됨.
 - 둘째, 산업화 형태에서 “경영체 6차산업화”는 개별 경영체가 경영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지역산업 6차산업화”는 각 개별 경영체 간의 협력·제휴·연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지향성에서 「산업·비즈니스 지향」은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커뮤니티 지향」은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역 및 사회적 지향성이 강한 것을 의미함.
 - 거래형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유형」, 고객을 초대하여 거기서 상품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 유형」, 그리고 두 유형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 사례 ◀

-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의 사례를 조사 · 분석하기 위하여 중점사업별로 1차 중심(생산), 2차 중심(가공), 3차 중심(체험 · 관광)으로 구분하고 각 중점사업별로 2개소씩 선정함.

1) 1차(생산) 중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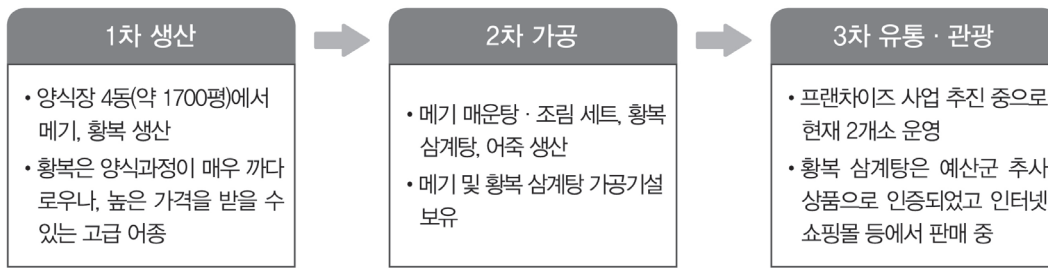
- 1차 중심 사례는 어촌의 공간적 관점보다는 어업의 산업적 관점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품종 및 양식기술 개발을 통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 봄.
- 천수만 씨푸드(주)는 천수만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바다송어를 생산하는 경영체임.
 - 품종개량을 통한 중국수출확대, 가공품 생산 및 국내판로 개척 등 추진



[그림 1] 천수만 씨푸드(주) 6차산업화 추진과정

- 예산 예당원은 민물에서 양식하기 어려운 황복을 양식하는 경영체임

- 국내 최초로 황복 양식에 성공하였고, 메기매운탕, 황복삼계탕 등 외식사업 추진 중



[그림 2] 예당원 6차산업화 추진과정

● 두 경영체는 업체형태 및 추진주체에서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는 유사함.

- 두 경영체 모두 지역산업 육성보다는 수산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커뮤니티 지향보다는 경영체의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중점사업은 바다송어(천수만 씨푸드), 메기, 황복(예당원)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2차, 3차산업으로 확대시키는 1차 중심의 형태를 띠고 있음.

[표 1] 1차(생산)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천수만 씨푸드(주)	예당원
업체형태		어업회사법인	자영업
유형 구분	추진 주체	법인경영체(어가)	어가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경영체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비즈니스 지향	산업·비즈니스 지향
	중점 사업	1차 중심	1차 중심
	거래 형태	직거래 유형	직거래 유형
6차산업화 과정	1차	바다송어 생산	메기, 황복 생산
	2차	과메기, 어묵, 간송어	매운탕 · 조림세트, 황복 삼계탕
	3차	프랜차이즈 및 수출 희망	프랜차이즈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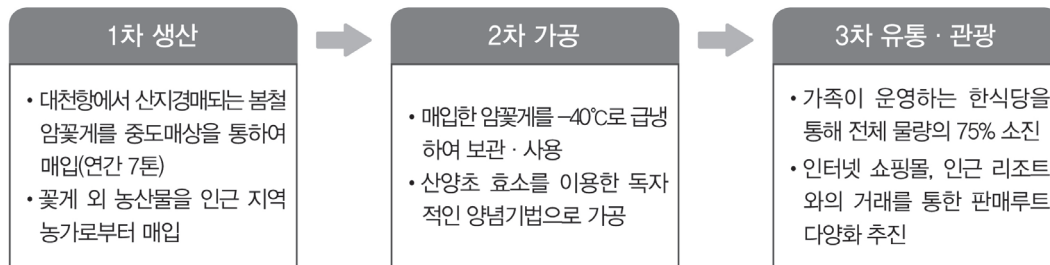
2) 2차(가공) 중심 사례

- 2차(가공) 중심 사례는 원물생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역 가공산업의 관점에서 사례를 살펴보았음. 수산업의 특성 상, 어업인인 수산가공까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로작업이 대부분 협업체계로 개별 어업인이 가공공장을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임.

- ‘그이랑 영어조합법인’은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암꽃게를 간장게장, 양념게장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영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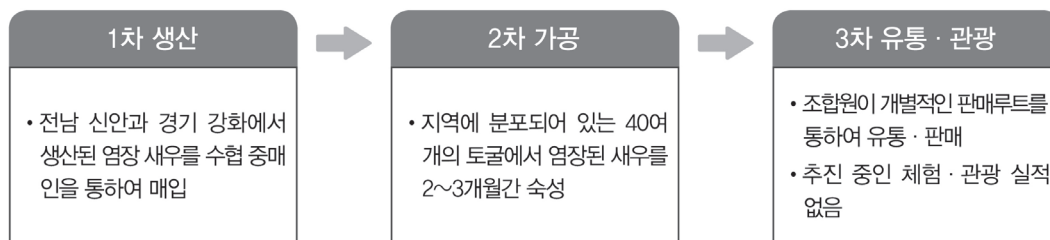
– 지역산 암꽃게를 매입하여 가공하고, 이를 직영식당,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음.



[그림 3]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6차산업화 추진과정

- ‘광천 영어조합법인’은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생산해 온 토굴 새우젓을 제조 · 판매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온 토굴을 활용하여 새우젓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4]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6차산업화 추진과정

- 두 경영체는 업체형태는 같으나, 추진주체에서 차이가 있음.

– 그이랑 영어조합은 조합원이 5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실질적으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체이고, 광천 영어조합은 지역 상인이 참여한 조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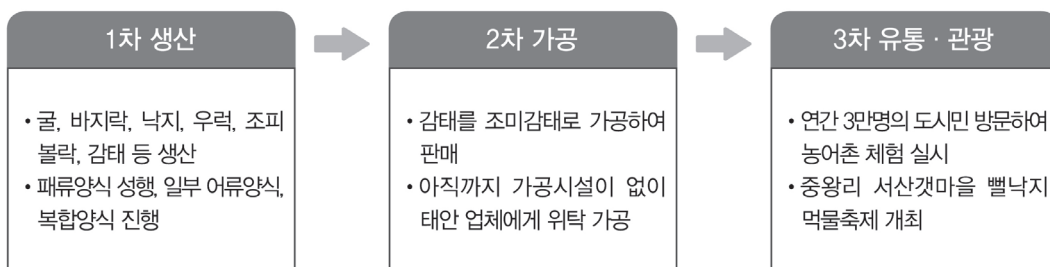
– 두 경영체 모두 지역 산업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다는 점과 원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2차 중심의 경영체라는 점에서 유사함.

[표 2] 2차(가공)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그이랑 영어조합법인	토굴새우젓 광천 영어조합법인
업체형태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유형 구분	추진 주체	법인경영체(개인 주도)	법인경영체(상인연합체)
	산업화 형태	경영체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산업 · 비즈니스 지향	산업 · 비즈니스 지향
	중점 사업	2차 중심	2차 중심
	거래 형태	직거래 유형	직거래 유형
6차산업화 과정	1차	지역(보령)에서 생산된 꽃게	타지역에서 생산된 염장 새우
	2차	산야초 효소를 활용한 간장 · 양념 계장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
	3차	한식당, 인터넷 판매	조합원 개별적으로 유통 · 판매

3) 3차(체험 · 관광) 중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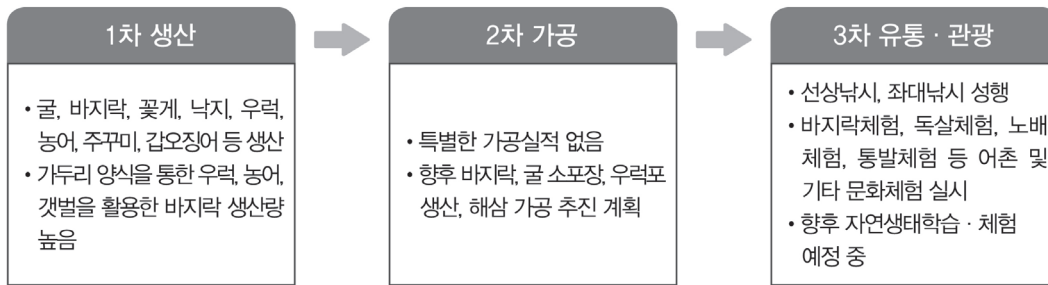
- 3차 중심 사례는 유통, 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사례(서산 중리, 태안 대야도)를 중점적으로 살펴 봄.
- 중리 어촌체험마을은 서산 중왕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간 3~4만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고 있음
 - 농어업 · 농어촌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며, 감태, 굴, 바지락, 낙지, 주꾸미, 우럭 등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그림 5] 중리 어촌체험마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은 태안군 중장5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낚시, 갯벌체험, 노배체험, 통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귀촌인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그들이 중심이 되어 화가마을 체험, 천연 식물성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6]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을 6차산업화 추진과정

- 두 경영체는 어촌체험마을로서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비슷한 유형을 보임.

- 다만, 추진주체에서 중리 체험마을은 어촌계원이 주도적인 반면, 대야도 체험마을은 어촌계원과 마을주민이 절반씩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마을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수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산업화로 확장시키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성격을 띠고 있음.
- 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업이 전개한다는 점에서 지역·커뮤니티 지향하고, 모든 것이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류유형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 3차(체험·관광) 중심 경영체 비교

구분		중리 어촌체험마을	대야도 어촌체험마을
업체형태		어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유형 구분	추진 주체	어촌계 주도(마을주민 포함)	지역공동체 주도(어촌계원 포함)
	산업화 형태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역산업 6차산업화
	지향성	지역·커뮤니티 지향	지역·커뮤니티지향
	중점 사업	3차 중심	3차 중심
	거래 형태	교류 유형	교류 유형
6차산업화 과정	1차	굴, 바지락, 낙지, 감태, 우럭, 조피볼락 등	바지락, 굴, 꽃게, 우럭, 농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등
	2차	조미감태 생산·판매	뚜렷한 실적 없음
	3차	어촌체험, 중앙리 서산갯마을 뽕낙지 먹물축제 개최	어촌체험, 문화체험

04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산업 간의 단절성, 자원의 분산성, 사업의 산재성, 주체의 비전문성, 행정의 비전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산업 간의 단절성

- (문제점) 하나의 큰 줄기로 이어져야 하는 6차산업화 과정의 중단이 산업 간의 단절성임.
 - 1차 산업 경영체가 타 시·도의 업체를 통하여 가공·유통을 한다든지 2차 산업 경영체가 원물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면 하는 문제에서 발생함.
- (개선방안) 광역단위 자원순환 시스템이 필요함.
 - 특정 시·군에서 원물 수급 및 위탁가공, 유통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광역단위에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광역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D/B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생산 - 가공 - 유통 - 체험·관광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자원의 분산성

- (문제점) 현재의 어업·어촌 형태는 지역 커뮤니티 또는 사회적 자본의 주도가 아닌 일부 개별 어가 또는 업체 주도로 자원이 분산되는 경향.
 - 개별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자원이 어촌사회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개인 또는 개별 경영체가 이익을 독점할 수 있음.

● (개선방안)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 육성이 필요함.

- 6차산업화가 개별 경영체 주도가 아닌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어촌계원 또는 어촌마을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능력있는 리더를 육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공동체로의 육성이 필요함
- 개별기업 경우, 정책적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함.

3) 사업의 산재성

● (문제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촌마을일수록 점차 특색을 잃어가고 사업동력을 상실하게 됨.

- 어업인 또는 어촌계에게 어업외 소득 증가를 위한 과도한 사업추진을 요구함으로써 마을 내 갈등 유발과 추진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산재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함.

● (개선방안)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어촌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특히, 우수마을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기 보다는 의지가 있는 신규마을을 발굴하여 주민 교육과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색깔있는 6차산업화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권사업보다는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추진이 필요함.

4) 주체의 비전문성

● (문제점) 고령화·여성화·과소화되어 6차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와 리더를 찾아 보기 어려움.

- 평생 어로활동에 종사한 어업인이 가공공장, 레스토랑, 체험마을 등 2차·3차 산업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함.

- 6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변화, 소비트렌드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나, 현재 고령화된 어촌주민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임.

● (개선방안) 지역리더 육성이 필요함.

-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역리더 육성이 필요하고,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촌리더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자 기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에 있는 도시민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귀어·귀촌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5) 행정의 비전문성

● (문제점) 6차산업화의 정확한 개념, 어업·어촌분야로의 접목, 적절한 행정절차 및 추진 방향에서 행정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어촌관광, 체험마을, 수산물가공지원사업, 유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또 중앙부처 사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함.

● (개선방안)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어촌개발, 수산식품·가공, 어촌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의 업무적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함.
- 단순히 어업·어촌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문화·관광과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자체 내 부서 간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어업·어촌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충남 어업·어촌 사례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함. 향후 충남이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충남 광역단위 6차산업화 체계 구축

-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 체험·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 순환고리를 마련해야 함.
- 충남 내 어가, 어촌계, 가공업체, 유통업체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매칭·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충남 내 유희 가공시설을 6차산업화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실질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농촌 분야의 가공시설, 판매·유통시설, 체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함.

● 둘째, 어촌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기업 육성

- 6차산업화는 1차·2차·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향후 어촌계,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야 함.
- “3농혁신 6차산업화팀” 내 어업·어촌 분과를 신설하고, 충남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어촌마을의 개성을 반영한 중점사업을 강화하도록 선택과 집중

- 어촌마을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중점사업을 지원해야 함.

- 체험이 강점인 곳은 체험·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지원하고, 수산물 생산과 가공이 강점인 곳은 생산·가공과 연계된 사업을 집중 지원함

● 넷째, 현장에서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 강화

- 6차산업화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고, 소비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귀어·귀촌인 또는 젊은 층을 육성해야 함
- 마을의 향토음식, 체험·관광, 숙박 등에서 여성 어업인의 역할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차산업화의 필요성, 커뮤니티의 가치, 마을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

● 다섯째, 담당 공무원의 지식과 능력 배양을 통한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함.

- 충남도와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신규임용 공무원, 정예육성 공무원 교육에 6차산업화, 어촌개발, 수산물 로컬푸드와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농업·농촌 담당업무와 연계를 통하여 외연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농촌과 어업·어촌이 융·복합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과 정책연계가 모색되어야 함.

● 여섯째, 민(民)주도의 어업·어촌 6차산업화 조직 육성과 마케팅활동 강화

- 충남의 어촌리더들을 중심으로 “(가칭)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협회”를 발족·육성하고, 지역 수산물, 수산가공품, 체험·관광 등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함.
- 어촌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수산식품 공동브랜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어업·어촌 6차산업화 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함.

김 종 화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28, sdart@cni.re.kr

※ 본 리포트는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사례연구」를 요약한 것임.

◆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6차산업화 우수사례집.

今村奈良臣(1998)、新たな価値を呼ぶ、農業の6次産業化、21世紀村づくり塾.

小林茂典(2012)、6次産業化の展開方向と課題、農林水産政策研究所.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 · 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 · 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 · 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 폐염전 · 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 충청남도 시 · 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6	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아	2016.06.30
2016-29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 시 · 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 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이인배 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표정기 · 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